

졸속 논란 '김영란법' 정치권 보완 움직임

민간 적용·형평성·기준 모호성 등 수정 요구 '붐'

유승민 "필요시 고치겠다"·강기정 "검찰권 남용 우려"

이상민 법사위원장 "변호사·의사·시민단체 등 다 넣어야"

졸속 입법 논란이 일고 있는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법안 통과 하루도 안 돼 보완 입법이 거론되고 있다. 법안이 만들어진 지 2년반 동안 정부 위 차원의 논의로만 방치하다 최근 며칠 새 허겁지겁 조문을 완성해 본회의 표결을 거친 지 불과 하루만인 4일 여야 내부에서는 졸속한 보완 입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수정 내지 보완이 거론되는 부분은 ▲공직자를 넘어 민간 영역까지 확장한 법 적용 대상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가능성 ▲시민단체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전문직은 제외한 민간 부문 내에서의 형평성 위배 ▲부정청탁 기준의 모호성 ▲위헌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우자 신고 의무 ▲직무와 무관하게 금액 기준으로 정액과 뇌물 수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조항 등이다.

특히 법안 협상과 처리를 주도한 여야 원내 지도부조차 보완 입법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어 주목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의 '근본 취지'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1년 반의 준비기간에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예외 조항(8조 3항)에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주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금액 수준을 시행령으로 정할 때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이 보완 입법에 가장 적극적이다.

이 위원장은 MBC·CBS 라디오 등과의 인터뷰에서 "문제점을 빨리 보완하는 작업을 국회가 할 것이고 나도 그런 노력을 하겠다"면서 "애초 취지대로 공직자에 한

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형사 처벌 전제조건이 되는 모호한 규정들을 빨리 명확히 손봐서 시민의 혼란이나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변호사·의사·방위산업체, 시중은행, 시민단체 등 다른 공익적 영역을 하는 부분은 왜 빠져 있는지 형평성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부분도 다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만 교묘하게 빠져나갈 조항을 끼워 넣었다는 지적에 "오해의 여지가 있는 만큼, 국민이 비판하지 않도록 서둘러 빨리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검찰권 남용과 과잉 입법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강 정책위의장은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검찰의 권력 남용으로, 6개월 전 김영란 전 대법관과 만나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면서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부대의견이라도 달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자의적 수사 문제 때문에 부정청탁 유형을 항목별로 나눠 구체적으로 적시했는데, 그러다 보니 법안이 약간 어색해졌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4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당내 친노 편중인사 탕평을 주장하며 당무를 거부했던 주승용 수석 최고위원(문 대표 오른쪽)은 최근 자신의 뜻이 일부 수용됨에 따라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주승용 당내 위상 커지나

당직 친노독주 제동 7일만에 전주 현장최고위 참석

새만금특별법 등 공로 문제인 명예전복도민중 받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친노(친노무현) 인사 당직 인선에 반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해 왔던 주승용 최고위원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후 4일 당무에 복귀, 향후 당내 위상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 최고위원은 문 대표가 친노계인 김경협 의원을 수석사무부총장을 임명한 데 이어 조직사무부총장에도 친노계인 한병도 의원 카드를 검토하자 강력 반발하면서 당무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비노인사인 김광영 의원이 조직사무부총장으로 임명되자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 참석했다. 지난달 25일 이후 이날 7일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 자리에서 주 최고위원은 "그동안 당원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의 화합과 균형을 위한 총정리인 의견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표의 결단에 감사 드린다"고도 했다.

그는 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도 인용하면서 "서로를 진정으로 배려하고 존중해야 비로소 통합이 가능하다"며 "정권교체를 통해서 국민과 함께 가자"고 강조했다.

주 최고위원은 하지만, "드라마 '정

도전'에서) 막연한 친구사이에서 서로를 제거해야 하는 정적으로 마주한 정몽주, 정도전의 대화를 곱씹어보고자 한다"며 정몽주가 옥에 갇힌 정도전에게 '내가 믿는 건 대의이고 힘이 있었으면 대의 때문'이라고 말하자, 정도전이 '자네의 대의만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말게. 대의 반대편에는 또 다른 대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대답한 부분을 인용, 소개했다. 사실상 문 대표를 정몽주에 비유해 당내 인사 문제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처럼 주 최고위원이 당무 복귀의 순간에도 당 대표를 견제하는 것을 볼 때 향후에도 비노세력의 중심에서 문 대표를 위시한 주류 축을 견제하는 선봉이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 게 정치권의 일반적 분석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이번 당내 최고위원에 주 최고위원은 위상이 올라갔다"며 "앞으로도 비노계의 최일선에서 친노의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날 전북 최고위원회의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문 대표가 새만금 특별법 제정과 국민연금공단 금융운용본부 전복 이전 등 전북 현안을 앞장서서 지원해준 공로가 컸다"며 문 대표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 지역분권정당추진단장 김부겸

공천혁신추진단장엔 박영선 물망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야심 차게 출범시킨 '지역분권정당추진단' 단장으로 김부겸 전 의원을 발탁하기로 하는 등 탕평인사 기조로 다시 돌아갔다.

지역분권정당추진단은 공천혁신추진단, 네트워크정당추진단과 함께 문 대표가 취임 즉시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역점 기구로,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공식 기구로 의결됐다. 특히 지역분권은 문 대표가 18대 대선후보 시절부터 이번 전당대회까지 수차례 강조해 온 바 있어, 당에서는 무게감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인선을 검토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4일 "기구설치 직후부터 단장 인선을 논의했고, 지역분권단장은 김 전 의원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야당의 불모지인 대구의 수성갑 지역구에서 39.9%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당내 '지역주의 타파'의 상징으로 떠올

랐다. 이번 2·8 전당대회에서는 비노그룹을 중심으로 당 대표 후보로 올림해야 하는 '문재인 대항마'로 평가를 받다가 불출마했다.

또 내년 총선의 공천제도 개혁을 주도할 공천혁신추진단장으로는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지낸 박영선 의원이 물망에 올랐다. 그러나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의원의 인선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오면서 현재로서는 결정이 잠시 유보된 상태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문 대표는 박 의원 이상의 적임자가 없다고 보고 있어, 설득 작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넓은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네트워크추진단장에는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최재성 의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전문성을 갖춘 정정래 최고위원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 64% "김영란법 통과 잘했다"

리얼미터, 성인 500명 설문

70% "교직원 등 포함 바람직"

국민 10명 중 6명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국회 통과를 '잘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전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한 결과, 응답자의 64.0%는 법 통과에 '잘했다'고 답했다고 4일 발표했다. '잘못했다'는 답변은 전

체의 7.3%에 불과했고, '잘 모름'은 28.7%였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에서 긍정 평가가 66.5%로 가장 높았고, 경기·인천 66.0%, 대전·충청·세종 65.5%, 서울 62.3%, 대구·경북 60.7%, 광주·전라 54.4% 등 순이었다. 연령별 긍정률은 50대 78.5%, 60대 이상 72.1%, 40대 65.1%, 20대 55.2%, 30대 47.3% 등 순이었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9.8%가 바람직하다고 평했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은 전체의 12.0%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서울 보선 새정치 조영택 예비후보

문화수도 광주발전 5대 핵심공약 발표

4·29 광주시 서구를 보결선거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예비후보가 4일 문화수도 광주 발전을 위한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조영택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 기반이 취약한 광주경제가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과 자동차산업의 상생발전

을 이끌어 내므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또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소음피해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주 공공화 이전 추진 ▲광주과학기술원(GIST)에 공화학·광생물 분야 등 5대 연구단 사업 유치를 통한 연구 역량 강화 등을 광주발전을 위한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목회자심리상담사과정 모집

- 지원자격 : 목회자(목사, 강도사, 준목)
- 수업형태 : 2년(4학기) / 15주 / 매주 목요일 11:00-15:50
- 교육일시 : 2015년 3월 5일 개강
- 혜택 : 한 교회에서 두 분 이상 등록하면 수강료 20% 할인

교육, 말씀, 기도, 상담
행복한 목회현장!!

광신대학교 사모상담전문지도자과정 모집

- 지원자격 : 목회자(목사, 강도사, 준목) 사모
- 수업형태 : 2년(4학기) / 15주 / 매주 목요일 11:00-15:50
- 교육일시 : 2015년 3월 5일 개강
- 혜택 : 한 교회에서 두 분 이상 등록하면 수강료 20% 할인

심리상담사, 가정지역상담사, 도형상담사 자격 취득!!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제23기 학생모집

◀ 보건복지부 위탁교육기관 ▶

교육안내

- 교육기간 : 2015년 3월 2일 ~ 12월 중순(약 10개월)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수업
- 교육시간 : 오전 9:00-1:20

제출서류

1. 본 교육원 입소신청서(소정양식) 1부, 사진 2매
2.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 원서접수시 전형료 : 10,000원

원서접수 현재 접수중

문의할 곳 062)605-1112, 1023

광신대학교 여자신학원(여전도사과정) 모집

- 지원자격 : 세례교인인 재(학력제한 없음)
- 수업형태 : 2년(4학기) / 주 3일 / 야간제
- 교육일시 : 2015년 매주 월·화·목요일 19:00 - 21:55
- 제출서류 : 입학원서(사진 3cm×4cm 2매) 및 담임교역자추천서 1부
- 혜택 : 매학기 신청자에 한하여 교회봉사장학금 지급

문의할 곳 062)605-1063, 1112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 광신대학교

옥상·외벽·내벽·주택 방수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편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롤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위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이앤지 미화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